

무용 체험의 교육적 기능

*황정옥

목차	Abstract
	I. 서론
	II. 무용교육의 시대성
	III. 자기표현으로서의 무용체험
	IV. 결론
	참고문헌

*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초빙외래교수, 한국무용교육원 연구원

논문투고일 : 2018.10.27.

논문심사일 : 2018.11.17.

게재확정일 : 2018.12.01.

The educational functions of dance lived experience

Hwang, Jeong-ok · Kyung Sung University

Even the education system now wants to share and produce knowledge with empirical knowledge instead of forming content systems with rational knowledge. Contemporary dance education reasons (thinks) with the body and it also requires empirical knowledge. Because of this, the character of dance experiences, which are direct experiences, becomes the role and function of dance education. Today's society needs people who can express themselves well and who believe in their own abilities. This is because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that cannot be filled by rational knowledge can be restored by trust created by the imagination of our awareness. Because of this, this study, which aims to observe the educational functions of dance experiences, attempted to study dance education within the changes of today's society, or in other words, the position and contemporary character of dance experiences, and based on this, it explored the character of dance experiences as self-expression. This makes self-expression as anticipated by the contemporary age a role of dance education and the results drawn through this study are as follows.

Dance education (lived experience) of the contemporary age does not refer to experiences that are incorporated into or displaced by knowledge but it exists within the flow of our consciousness that projects and introjects the world itself as we perceive it. By focusing on the unique functions that dance has as an arts form and not only understanding one's self (self-awareness) but also observing and exploring things that go beyond other cultures, other time periods, and other regions (objects, thoughts, phenomena), it collaborates in figuring out the position of one's own (culture) attitude and values. The contemporary character of dance education is in its exploration of methods that create experiences. As this is an awareness of a world that is 'discovered' by one's own senses and an act of 'giving meaning' to this, it is an ethical attitude that focuses on dance perception within relatedness and it is a realizable attitude through self-expression that cautiously thinks with the body.

Moments of dance experience are not continuations of moments but a time of formation-change. This is because one personally feels and thinks and faces time and the subject of formation-change with the heart. As self-expression in dance experience is not speculation or prediction but becoming that something with the heart (indirect experience), this leads to the issue of how we exist (how we will exist) and introspection. Self-expression exposes the larger truth in relationships and it is the image of imagination as spoken by internal calm (peace of mind) and the courage of self-expression in the world holds the anticipation that we can become liberated from all that defines us and stipulates us as concepts ‘discovery’ and ‘giving meaning’ in contemporary society begins from such courage. Thus, we search for the discernment and courage that allow us to understand experience in the proper direction from within dance experience and self-expression in dance experience expands the unique possibilities and potential of humans through such actions.

〈key words〉 dance education, dance lived experience, discrétion

〈주요어〉 무용교육, 무용체험, 분별력

교육의 역사는 체제에 대한 이해와 대안으로 발전해 왔고 시대 사회의 변화와 함께 했다. 이는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체계와 조건에 대한 해석이자 행위로 결정지어진다. 아울러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동일한 모습으로 혹은 대척점의 가치로 교육 철학과 실천이 공존해 오고 있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면서 변화하는 과학·기술의 생산성과 또 다른 산업화의 기조에 맞춰 예술과 교육도 변화해야 한다는 의식(주장)과 인지과학, 신경과학, 발달심리학 등 인접학문분야의 연구의 영향으로 기초교육으로서 인간 고유의 감각(몸)이 지표로 인식되기에 예술교육은 감각과 몸에 집중해 온 연구가 마주하고 있다.

과학의 시대에 우리는 실증과 증명으로 세계를 파악하려 했고 누적적이고, 순차적이며, 정의될 수 있는 가치와 지식을 주요하게 여겼다. 지식은 교육의 핵심이었으며 절대적 위치를 차지했다. 합리성이라는 근대의 가치에서 지식은 보편성을 확산하는데 중요한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식 또한 복수형이며 고착화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라는 환경의 관계에서 생성-변화한다.

문화와 사회에서 인간의 존재 형상과 고유 사유(생각)체계가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된 동시대에 무용교육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지식을 획득하고 적용하며 학습한다. 교육의 영역에서 경험적 지식이 강조되는 양상은 이미 구성주의, 전체주의, 경험주의 교육 사상을 통해서도 빚대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유로부터 무용교육의 시대성을 무용체험을 통해 살펴보고자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무용교육의 현상은 체험이라는 형식으로 공유되며 참여자의 체험적 특질은 자기표현으로 드러나기에 본 연구의 목적은 결국 동시대 무용교육의 교육적 기능을 탐색해 보는 것이 된다.

무용은 신체(몸)를 매개로, 혹은 도구로 존재한다고 인식되기에 신체표현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무용교육이 존립해왔다고 추론하기도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이성적 지식 체계인 언어의 구조에 너무 의존한 나머지 감각과 상징의 표현에 무감각해진 것인지도 모른다. 예술 세계에 존재하던 무용이 사회과학의 영역인 교육과 조우하면서 명확하고 분명한(해 보이는) 언어가 우리의 교육적 행위를 설명하기에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무용은 몸으로 사유하고 실천하는 인간 행위의 영역이다. 그렇기에 직접 경험(체험)하지 못한 이성적 지식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동시대의 무용교육의 기능을 살펴보

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변화한 시대 사회에서 무용교육의 모습(위치)을 탐색하고 이를 근거로 무용체험에서의 자기표현의 성격과 기능을 살펴보았다.

II / 무용교육의 시대성

제 3세계의 역사와 가치가 온전히 공유되길 기대하는 동시대는 지배와 경쟁이 강조되던 이전 시대 사회(근대사회)의 정체성을 새롭게 조망한 결과다. 지금의 시대상은 개인주의와 나르시시즘을 넘어 집단적 태도에 더 큰 관심을 갖는다. 부족의 시대를 알린 Maffesoli, M.(2017)은 합리주의의 목표였던 단일성(unicité)에서 떨어져 나와 다양한 요소들의 조정으로 형성되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단일성을 계승하는 통일성(unicité)을 주장한다. “갈등적 조화라는 틀 속에서 신체의 기능과 역기능을 통합할 줄 하는 정신감각처럼, 제 3자라는 개념을 차이의 창설적 측면을 강조”(Maffesoli, M., 2000, 박정호·신지은 역, 2017:192)하는 것이다. 이는 어느 것에도, 어느 곳에서도 귀속되거나 종속되지 않는(않아야 하는) 문화 혹은 혼종성¹⁾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제 3세계, 제 3자의 문화가 동시대에 공존함을 말하고 있다.

앞선 시대, 즉 과학의 시대는 측정하고 증명해 냄으로써 그들(과학)의 구조를 쌓고 존재했다. “과학적 상상력은 기존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김상욱, 2015:291)하다. 이때 상상력에 의해 얻어진 답은 빨리 기존의 지식에 편입되며 상상력을 통해 답을 찾았다면 그 이유는 기존의 지식에 그것이 편입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답이 있는 문제를 찾는 과학과 달리 문제 자체를 상상하는, 그리고 인식하는 그것을 그 자체로 상상하는 것이 예술이다.

예술(무용)교육에서의 체험은 지식으로 편입되거나 환치되는 경험이 아니라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 그 자체를 투사하고 내사하는 의식의 흐름에 존재한다. 그렇기에 무용교육의 역사는 과학의 인접 학문인 체육에서의 신체(능력) 발달과 표현, 기준과는 다르다고 주장해 왔지만 언어와 문자가 학문과 지식을 구성하는 단위이자 절대적 기준이었던 시대 속의 무용은 무용의 구조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도출한(구성)요소나 형상에 매몰되어 무용을 무용 그 자체로 인식하기보다 무용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언어를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결과도 안게 되었다. 이런 역사

¹⁾ Homi, K. Bhabha의 용어

에서 물러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문화예술교육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문화예술교육현장 조차 사회과학의 지붕 아래에 있는 교육학에서의 용어와 언어, 교육 프레임에 예술(무용)을 넣어버림으로써 개념(언어로서의 이성적 지식)을 예술로 표현하는 현상이 목격된다. 과학의 시대가 지나갔으나 그 끝에서 교육활동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대는 집단(공간)이라는 사회와 시대(시간)라는 문화가 중첩된 곳으로 사회학과 문화학이 이전의 기준과 규칙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변혁의 사이에는 역사의 과학화가 있었으며 그들의 연구가 진보였다고 하나 지식인의 지평(지식인에 의해 역사가 재규정되는)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했을 뿐이었다. 문화의 역사가 새롭게 조망되는 이유는 자국문화를 인정하는 다양성에 대한 열망 때문이다. 시간의 사이에서 고유한 형상을 지니고 있는 문화 그 자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난 것이다.

넘어서(beyond)의 장소에 있다는 것은...(중략)...중간에 낀 공간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한 '넘어서의 위치에서'산다는 것은...(중략)...수정의 시간에 속해 있음을 뜻한다. 즉 우리의 문화적 동시대성을 재 기술하는 현재로의 되돌아봄에 속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인간적·역사적 공동성을 재기입하는 현재로의 되돌아옴이다. 그것은 또한 '미래를 미래의 이쪽 편에서 접촉하기 위한' 현재로의 귀환이다. 따라서 그 같은 의미에서 중간에 낀 공간 '넘어서는' 지금-여기에서의 간섭의 공간이 된다(Homi, K. Bhabha, 1994, 나병철 역, 2014:38-39).

제 3세계들이 각각의 문화를 기반으로 역사적 궤도를 설립하면서 집단적 문화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개혁된 역사에 대한 인식은 기록되고, 행동과 습관으로 계승되는 역사들은 현실과 관계 맺지 못하는 과거의 기록이아니라, 기존의 행동과 습관의 의미를 갱신하고 또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지금의 지구와 앞으로의 지구를 예견하는 다양성의 기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한해리, 2018:82).

무용 또한 사이의 경계와 지금-여기의 공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동시대의 무용교육은 자기 자신과 세계, 타인과의 관계(형태와 방식)의 체험(드러냄)에서 문화 정체성을 형성하고 친밀함과 낯섦으로부터 자유를 기대한다. 문화적 존재로서 우리의 행위는 결국 자기 드러냄의 궤적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황정옥, 2018:45). 따라서 무용교육은 교육프로젝트로 실천되고 있으며 문화와 사회(집단)안에서 문화적 연구로서의 무용 읽기로, 무용 그 자체를 인식하고 만들고 경험하는 무용즉흥, 예술통합 무용이 방법론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방법론은 무용을 언어로 환원하거나, 기존 지식 질서에 의존하지 않고 예술로서의 무용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기능에 주목한다. 무용교육은 자기이해(자기 인식)뿐 아니라 다른 문화, 다른 시대, 다른 영역 등

의 너머에 있는 것(사물, 사고, 현상)을 관찰하고 탐색해 봄으로써 자신(문화)의 태도와 가치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협력한다.

교육의 궁극적인 지향성이 자아실현에 있다면 우리는 자아라는 존재를 어떻게 대면해야 할지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아가 발견되고 형성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이는 이제 없을 것이다. 그러나 타자를 나의 주관(주체)에 환원시켜 버리는 유럽중심(서구)의 문화적 틀에서 타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큰 울림이었고 이는 곧 독립적인 타자를 인정하는 윤리철학의 시작이었다. 주체에 중심을 두는 서구 사회의 도덕과 철학은 질서와 균형을 위해 지배와 위력을 행사했으며 전체주의와 자유주의와 같은 시대 사회 이데올로기가 조력했다. 그렇기에 Levi Strauss, C.는 서구 문명이 주체에 지나치게 매달린 까닭에 “세계에 대한 진정한 공경”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Zaoui, P.(2017)는 ‘문명화된 사회’는 “상호 관찰을 습관으로 삼는 사회”라고 생각한다. Maffesoli, M.(2017) 역시, 문명은 폐쇄적인데 반해 문화는 제 3자를 적극적으로 포용한다고 본다. Levinas, E.(2001)는 전체주의 사회를 실제 목격하고 경험하면서 독립된 타자에 관심을 가졌고 우리의 책임은 타자로 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 안에서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의식의 흐름 속에서 자아는 생성이라는 변화하는 다수성(multiplicité)을 가로지르며 동일성을 유지하는 어떤 것으로서 머무른다(Levinas, E., 1963, 서동욱 역, 2001:145).

무용교육(체험)은 여럿의 다른 관계에 우리(자신)를 위치시킴으로써 그 관계에 머물러 보는 시간을 갖는다. 아주 세밀하게 보고(관찰), 자신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마음으로 보며(탐색) 의미를 부여한다. 이때는 선급한 예단이나 그 순간의 감정 상태 혹은 이성적 지식에 얽매인 판단을 유보한다. Zaoui, P.(2017)는 ‘드러내지 않기(discretion) [신중함, 분별력]²⁾로 존재를 조용히 음미하려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떨어져 나오는 유예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시간이 앞으로 나아가는 질서 속에서의 멈춤, 그 질서에서 떨어져 나온 순간을 일컫는다. 구별되지 않고 너머에 있는 모든 것을 아무 의문 없이 맞아들이는 그래서 흥분과 불안이 없는 평정이 그것이다.³⁾ 질서와 위계, 위력이 생성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평정) 삶의 무한한 가능성을 관찰하고 탐색하는 것이다.

2) ‘신중함’이나 ‘분별력’이라는 역어가 경우에 따라서는 문맥을 매끄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는 하나 저자가 말하는 ‘discretion’은 ‘엄치’나 ‘조심성’ 같은 도덕적 품성과 구별되기 때문에 번역자는 ‘드러내지 않기’로 서술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3) Zaoui, P.(2017)의 용어이자 설명

이러한 진정성이 필요한 시대 사회에서 무용체험은 자기를 보이지 않게(은폐)하면서 타자를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있는데도 보지 않거나, 보기는 하나 타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보는’ 것이다. 나(자신)의 기준에서 대상에 대한 인식을 그르치는 것이기 보다 관계에서 그 자체의 성격과 의미를 파악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시선이 필요하다. ‘드러내지 않기’ 고유의 경험은 무용체험의 특질과 맥락을 같이 한다. 내적인 경험으로 외적인 경험에 휘둘리지 않는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경험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자신을 은폐하지 않고 세계의 관계로 말을 건네는 진정성이기도 하다. “예술성에 내재하는 관계 지향성을 설명”한 Taylor, C.는 진정성(authenticity)을 “예술은 내면의 참 자아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삶의 잣대를 모색하게 하면서 동시에 그 가치는 언제나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실현되기 때문이다”(강윤주 외, 2017: 99)라고 말한다. 외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내면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으로 자유와 진리를 추구하며 정치적, 윤리적 준거로 타자와의 관계에서 인간(개인)의 내면을 기준 삼는 것이다.

우리가 경험을 만든다기보다 경험이 우리를 만든다. 경험을 만드는 방식을 탐구하는 것이 동시대의 무용교육이다. 그렇기에 무용교육은 체험 속에서의(체험에 투입되는) 지식이나 개념보다 체험을 통해 알아챌 수 있는 인간 고유의 잠재력에 의지하며, 체험 그 자체를 인식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접근성으로 실천방향을 결정한다. 무용(예술)은 여럿의 관계 중 의도하는 관계에 의해 형상적으로 그리고 감각적으로 우리 앞에 드러난다. 연속적이고 확정적인 경험을 신뢰했던 시기의 끝자락에서 이를 극복하고 자유롭고 생생한 경험이 무용교육의 성격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몸으로 생각하는 무용’⁴⁾의 시대임을 일컫는다. 무용을 만들고 경험하는 동안 우리는 몸으로 직접 생각하고, 느끼고, 분별한다. 생각을 언어로 환치해 언어가 담고 있는 의미를 해석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고 만들면서 몸과 마음, 생각이 함께하는 것이다. 나(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몸으로 표현하는 하는 것이다.

동시대는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다양한 논의와 체계가 공존하고 그 궤적의 다양성과 관계성을 새롭게 구성한다. 아울러 경험의 사유의 방식(style of thought)이 생성한 의미에 관심을 기울인다. 그렇기에 한혜리(2018:91)의 주장과 같이 “다양성에 대면하는 직관력과 낯선 것에도 가치부여를 할 수 있는 발견력이 이 시대 사회의 예술성”이라 할 수 있다. 무용체험에서의 인식 대상을 특정한 논리나 규범, 인식 체계에 가두지 않고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는 발견으로서 호기심 혹은 관심에서 시작하여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는 탐구의 태도로 얻어지는”(한혜리, 2018:89)다의

⁴⁾ 한혜리는 한국무용교육원에서 주최하는 주말 무용 아카데미 ‘예술통합무용’강의에서 동시대의 무용은 생각을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신체교육에서 ‘몸으로 생각하는 무용’으로 변화하였으며 이는 곧 예술교육의 특징임을 주장하고 있다(2018.4.29).

적이고 다양한 가치는 무용교육에서 의미의 발견 혹은 의미 부여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는 곧 자신의 감각으로 ‘발견’하는 세계에 대한 인식과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로 관계성 속에서의 무용 인식에 초점을 두는 윤리적 태도이다. 이는 신중하게 몸으로 사유하는 자기표현에 의해 실현가능한 태도이기도 하다.

III 자기표현으로서의 무용 체험

1960년대는 6.8혁명으로 커뮤니티아트가 등장하는 문화 운동이 확산되었고 기존 체계에서 탈피하고자 한 무용 형태(반 무용, 비 무용, 환경 무용 등)가 등장하였으며 그 너머의 세계에서는 인공위성을 쌓아올린 정치·경제 이념의 대립이 1970년대와 1980년대의 학과중심 교육과정(discipline-based art education)이라는 예술 운동을 양상하기도 했다. 이때의 예술교육은 역사, 비평, 창작(제작), 미학이라는 구조로 분류되며 이는 동등한 가치로 제시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arts propel 교육과정(프로젝트)은 예술학습의 중심에 제작(making)을 최우선하는 인지적 접근방식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작품 만들기에 참여하고 맥락화하는 인식과 작업과정에 대한 반성적 사고 등의 인지활동이 중심이 되는 방법을 연구한 것이다. “이성과 감성을 둘러싼 논쟁이라는 측면에서, 두 접근 방식은 모두 인지적 접근 방식이었으며 예술의 제작과 감상, 학습을 감정의 측면보다 사고의 측면에서 다루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다”(Davis, H. J., 2008, 백경미 역, 2013:162). Davis, H. J.(2013:163)는 21세기에 들어와 예술교육은 “〈긍정적인 사회 변화의 매개체로서의 예술〉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포스트모던적⁵⁾ 환경에 들어섰다”고 본다. 예술교육은 사회(집단)안에서 존재하며 실천적 사유로 사회적 문제와 현상에 관여하고 더 나은 도약을 추구하고 있다.

세계의 역사는 직선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혼선을 거듭하기도 하고 동시대의 여러 가치가 대립되기도 한다. AI(artificial intelligence)시대를 맞이한 동시대 또한 발전하는 과학·기술에 맞물려 그것을 활용하고 적용하는 예술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동시에 인공지능 시대에서의 인간의 감각과 몸의 필요성을 연구하는 현상 또한 존재한다. 이성과 감성이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상실된 시대를 맞이하면서 추론, 가정, 욕망 등 다양한 은유적 어휘로 설명되는 인간 고유의 기능은 몸을 매개

⁵⁾ 이는 사회 운동 예술가들의 활동, 지역사회의 공공 예술 등 사회적 행동으로서의 예술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말한다. 사회 비판적 해설과 책임에 대한 예술교육 실천 활동을 일컫는다고 볼 수 있다.

로, 몸을 저장소로, 몸을 통해 생산되고 공유되기 때문이다. 동시대는 특정한 가치 정향성에 이끌려가기 보다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가는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다. 타자에 대한 독립적 인식, 그리고 어떤 관계나 다양한 위치에서의 배려와 협력, 겸손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Zaoui, P.(2017)는 “겸손은 타자의 신성을 마주하면서 자기 자신을 잠시 지우되 자신 또한 신에게서 말미암았다는 의식은 간직하는 것”이라고 본다. Uslaner, E. M.(2013)의 타자에 대한 신뢰는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일반적 믿음”에 있다. 또한 森博嗣(2018)는 “상대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는 것”은 인간 이외의 세계에서는 불가능하다 보았다. 이는 모두 상상에 의해 비롯된다. 직접 경험(체험)을 통한 가능성의 감각, 사유의 상상이 그것이다.

사물과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학습법은 무용 행위에서 상상으로 체험하게 된다(한혜리, 2018:80).

인간은 추상적 사고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면서 구체적인 것,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 등 사회·환경의 시선으로부터 ‘상식’으로 작동하는 이성적 지식, 즉 ‘언어’로 ‘정의’되는 그 무엇에 잠식당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자유로운 이미지,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던 고유의 통합적 이미지에서 떨어져 나오게 된다. 무용체험의 순간에 참여하는 우리는 존재자로 체험하는 것이지, 무엇인가를 맞추기 위해서 혹은 알고 있다고 표식하기 위해서, 나로부터 외부에 있는 지식에 다다르기 위해서 무용을 만들고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그냥 존재하고 있음에 만족하고 자리하는 것이며 취향이나 교양으로써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지위를 위한 증거로서의 즐기는 무용과 다를 바 없다. 이때의 참여자의 경험은 그 상황과 순간에 존재하고 있다(有)에 그칠 뿐이다.

삶(인간) 고유의 이미지가 희석되는 데는 상식, 정의, 규범이라는 지식이 있었다. 이와 같은 이성적 지식의 한계성은 감각으로 사유(생각)하는 예술체험의 상상으로 되돌아 갈 수 있다. “지식 확산은 수평적으로 공간을 이동하며 발생하지만, 과학자와 학자, 다른 여러 전문가로부터 대중을 향해 수직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Burke, P., 2015, 이상원 역, 2017:162-163). Burke, P.(2017)는 지식의 대중화(popularization)는 인쇄와 대중강연에 의해 진행되었고 특히 백과사전은 서로 다른 시대의 서로 다른 문화권의 지식을 확산하는데 기여했다고 본다. 때로는 언어 사이의 번역가처럼 역사나 문화 또한 ‘이국화 전략(전문용어를 원어 그대로 두는)’, ‘현지화 전략(당시에는 없었던 근대 서구 개념으로 표현하는)’을 토대로 지식의 역사를 정립해 왔다고 본다. 고유의 정체성이 언어-지식 세계에서는 사라지는 것이다. 이성적 지식 체계의 역사는 어느

순간, 지식의 축적, 연속, 누적에 의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지식역사학자들은 인지 과학의 발전을 의지하며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이나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하게 된 시점..(중략)..등 전환 시점에도 관심”(220)을 가지고 새로운 정향성을 모색하고 있다.

무용체험의 순간은 순간의 연속이 아니라 생성-변화의 시간이다. 어떠한 체험이 생성의 계기(moments)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무용 교육자는 예술적 사유, 영감, 인식이 어떤 계기로부터 발화하는지, 그리고 인식한 세계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참여자들과 어떤 관계와 태도를 구축해야 하는지를 연구한다. 우리는 ‘존재한다(있음).’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존재 하는가’ 혹은 ‘어떻게 존재하고 싶은가’의 의지로 사유하고 행동하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형상을 구축하며 존재자(existant)로 나아간다. 직접 느끼고 사유하며 마음으로 생성-변화의 대상과 시간에 마주하는 것이기에 무용체험에서의 존재자는 자기표현을 통한 드러냄의 자리에 있다.

관계의 전체상을 드러내는 자기표현은 내적 고요함(평정)이 말해주는 상상의 이미지이자 세계이다. 이전의 상식, 정의, 지각의 문제가 선입견과 편견으로 작동하는 순간이 사라지는 자리이자, 자신이 인식한 세계를 드러내는 사유의 공간인 것이다. 자기 안에 갇혀있지 않고 밖으로 나아가는, 자기 자신의 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는 자기표현으로서의 드러냄은 ‘고립(loneliness)’⁶⁾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에 자기표현의 무용체험은 세계에 당당히 서는 용기이자 용기를 필요로 한다. 신중하고 분별력 있는 태도는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맞닿게 되는(맞서게 되는) 사고와 가치에 저항하는 용기, 표현하는 행위 그 자체가 안겨주는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용기도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자기표현의 용기는 우리를 정의하고 개념으로 규정 짓는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기대를 안고 있다. 동시대 사회의 ‘발견’과 ‘의미부여’는 이러한 용기에 의해 비롯된다. 삶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경험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것을 구별한다. 올바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인식하는 분별력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삶의 풍부한 경험이 분별력을 갖도록 촉진하지만 내가 겪는 경험이 어떠한 성격의 경험인지 올바르게 인식하는 과정이 편입되지 못한다면 경험의 끝이 어떻게 도래할지 알 수 없다. 경험이 많다고 해서 그 모든 경험의 의미를 생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경험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별력과 용기를 무용체험 안에서 발견한다. 몸으로 사유하는 동시대의 무용교육은 지식과는 다른 사유(생각)를 통해 세계의 관계에서 옳은 것(right), 좋은 것(goods)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잠재력을 일깨운다. 이는 양극단으로의 구분 짓기가

⁶⁾ Arendt, H.의 의미로, 전체주의에서의 고립이란 비밀도 없고 물려남도 없으며 애착이나 초탈이 가능한 시공간이 없는 삶을 말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고립은 고독의 생산성마저 사라지게 한다고 본다. Zaoui, P.(2017) 내용 참조.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세계에 대한 인식으로서의 분별력이다.

겉으로(외연으로)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않고 본질(intrinsic)을 직시하고자 하는 보다 넓은 세계의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추상적 사고를 하게 된다. 언어 또한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의 의미를 담는 추상(抽象)의 결과이다. 그리고 언어의 시간을 가둔 것이 문자이다. 그러나 언어가 일상에서 특정한 쓰임의 역할에 간히게 되면 우리의 사고 또한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흘러가게 된다. 森博嗣(2018)는 언어는 “커뮤니케이션이 어긋나는 걸 막기 위하여 의미를 한정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와 같은’, ‘~처럼’이 추상적 사고를 이끌 것 같지만 이와 같은 언어가 더 이상 추상적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와 같이’, ‘~처럼’은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것을 흉내 내는 것일 뿐이다. 아무리 동일한(유사한) 경험을 갖고 있더라도 결국 동일한 이미지를 구현할 수 없는 것이다. 대상과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느끼는 것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무용체험은 구체적이고 규범적인 정보를 버림으로써 사유하고 발견하고자 하는 것에 가까이 다가선다. 그것이 되어 본다는 것은 (구체적이고 규범적인 정보로 작동하는)해체나 분류(요소)하기, 혹은 추상성의 착각이 아니라 그 자체를 인식하는 것이다. 부분과 부분으로 나누어 인식하면 전체를 파악할 수 없다. 그리고 부분의 연결로 완결 짓게 되면 표현하고자 했던 의미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진정한 용기로 자신의 인식과 감각이 그것에 다가가야 한다. 자신의 감각이 그것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관찰하고 탐색하며 상상으로 표현(상징)할 수 있게 되고 관계 맺음으로 의미를 갖게(발견하고 부여하기) 된다. 감각의 반대편에 있는 이성적 지식으로 추측⁷⁾하는 무용체험은 신체 표현만을 요구한다. 우리는 추측하거나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것이 되어 봄(간접 경험)으로써 온전히 자신과 마주하게 되며 이는 곧 어떻게 존재하는가(할 것인가)의 문제와 성찰로 이어진다. 예술은 관계, 현상, 사상, 행위 등 그 어떤 것을 어떻게 보느냐의 의식 활동이다. 그렇기에 무용체험은 어떤 관계 즉, 여러 입장, 여러 시대 속에 자신을 위치시켜보고 인식한 것을 표현토록 한다. 이처럼 무용체험은 개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의 위치에서의 관계로 자신이 인식한 것을 표현하기에 무용체험은 자기표현이라 할 수 있다.

자기표현은 언제나 다른 것과 관계 맺는 그리고 마음으로 보는 감각과 함께하기에 상상의 자유를 누리며 그 경험을 토대로 무한한 책임을 인지한다.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라는 삶에 대한 미덕(virtue)으로서의 용기, 평정, 성찰 등이 그런 것이다. 동시대의 교육은 자기를 잘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을 목표로 한다. 자기를 잘 표현한

⁷⁾ ‘어떻게 추면 어떤 느낌(감정)일 것이다’와 같이 어떤 생각이 움직임이 되게 하는 것은 특정한 도식이 작동하는 것으로 기준과 결과가 결정된 구조라 볼 수 있다.

다는 것은 전체의 관계에서 자리를 확인하는 것을 일컬으며 자기 인식이 전제된 바깥으로부터의 책임이 따른다. 이는 곧 자기표현의 교육적 역할이기도 하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타자와 무관할 수 없고 세계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울 수도 없다. 우리의 표현(행위)은 언제나 타자와 세계의 관계망에서 일어나기에 책임의 가능성 또한 인간의 잠재된 능력과 행위에 있게 된다. 무용체험에서의 자기표현은 이와 같은 행위로 인간 고유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장한다.

IV 결론

교육 체제에서 조차 이제는 이성적 지식으로 내용 체계를 구성하기도 보다 경험적 지식으로 지식을 공유하고 생산하고자 한다. 몸으로 사유(생각)하는 동시대 무용교육 또한 경험적 지식을 전제로 한다. 그렇기에 직접 경험이라는 무용체험의 성격이 곧 무용교육의 역할이자 기능이 된다. 지금의 시대 사회는 자기를 잘 표현할 줄 아는,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믿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이성적 지식으로 채울 수 없는 한계와 문제는 우리의 인식의 상상력이 미치는 신뢰로 회복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무용체험이 갖는 교육적 기능을 살펴보는 데 목적으로 둔 본 연구는 시대 사회의 변화 안에서 무용교육 즉, 무용체험이 갖는 위치와 시대성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자기표현으로서의 무용체험의 성격을 탐색하였다. 이는 동시대가 기대하는 자기표현이 무용교육의 역할이 되는 것으로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동시대의 무용교육(체험)은 지식으로 편입되거나 환치되는 경험이 아니라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 그 자체를 투사하고 내사하는 의식의 흐름에 존재한다. 예술로서의 무용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자기이해(자기 인식)뿐 아니라 다른 문화, 다른 시대, 다른 영역 등의 너머에 있는 것(사물, 사고, 현상)을 관찰하고 탐색해 몸으로써 자신(문화)의 태도와 가치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협력한다. 무용교육의 시대성은 경험을 만드는 방식을 탐구하는데 있다. 그렇기에 무용교육은 체험 속에서의(체험에 투입되는) 지식이나 개념보다 체험을 통해 알아챌 수 있는 인간 고유의 잠재력에 의지하며, 체험 그 자체를 인식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접근성으로 실천방향을 결정한다. 이는 곧 자신의 감각으로 ‘발견’하는 세계에 대한 인식과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로 관계성 속에서의 무용 인식에 초점을 두는 윤리적 태도이며 신중하게 몸으로 사유하는 자기표현에 의해 실현가능한 태도이기도 하다.

무용체험의 순간은 순간의 연속이 아니라 생성-변화의 시간이다. 직접 느끼고 사유하며 마음으로 생성-변화의 대상과 시간에 마주하기 때문이다. 추측하거나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것이 되어 봄(간접 경험)으로써 온전히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무용체험에서의 자기표현이기에 이는 곧 어떻게 존재하는가(할 것인가)의 문제와 성찰로 이어진다. 관계의 전체상을 드러내는 자기표현은 내적 고요함(평정)이 말해주는 상상의 이미지이자 세계로 자기표현의 용기는 우리를 정의하고 개념으로 규정짓는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기대를 안고 있다. 동시대 사회의 ‘발견’과 ‘의미부여’는 이러한 용기에 의해 비롯된다. 그렇기에 우리는 경험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별력과 용기를 무용체험 안에서 발견하며 무용체험에서의 자기표현은 자기 인식이 전제된 바깥으로부터의 책임을 다하는 미덕(virtue)의 행위로 인간 고유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장하는 교육적 역할을 지닌다.

참고문헌

- 강윤주·심보선 외 **생활 예술**, 살림, (2017).
- 김상욱(2015), “상상력을 상상하며: 융합에서 소통으로”, **상상력과 지식의 도약**, 이학사.
- 한혜리(2018), “문화에서 춤의 교육적 기능과 안무의 예술적 요소와의 관계”,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9(3)**, 77-92.
- 황정옥(2018), “무용교육프로젝트에서의 무용 체험”,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9(3)**, 39-51.
- Burke, P.(2015), *what is the history of knowledge?*, 이상원(역, 2017), **지식은 어떻게 탄생하고 진화하는가**, 생각의 날개.
- Davis, H. J. (2008), *why our schools need the arts*, 백경미(역, 2013), **왜 학교는 예술이 필요한가**, 열린책들.
- Homi, K. (1994), *the location of culture*, 나병철(역, 2014), **문화의 위치**, 소명출판.
- Levinas, E. (1963), *de l'existence à l'existant*, 서동욱(역, 2001), **존재에서 존재자로**, 민음사.
- Maffesoli, M. (2000), *le temps des tribus*, 박정호·신지은(역, 2017), **부족의 시대 -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개인주의의 쇠퇴**, 문학동네.
- Uslaner, E. M., (2013), *the moral foundations of trust*, 박수철(역, 2013), **신뢰의 힘-신뢰의 도덕적 토대**, 오늘의 책.

Zaoui, P.(2013), *la discrétion-ou l'art de disparaître*, 이세진(역, 2017), **드러내지 않기 -
혹은 사라짐의 기술**, 시빌 에이전시.

森博嗣, 人間はいろいろな問題についてどう考えていけば良いのか, 박재현(역, 2018),
생각의 보폭, 마인드빌딩.